

Romans 8:14–17 (NIV)

14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15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s, so that you live in fear again;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16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17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John 14:15–21 (NIV)

15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s.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to help you and be with you forever— 17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18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19 Before long, the world will not see me any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20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21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Galatians 4:1–7 (NIV)

1 What I am saying is that as long as an heir is underage, he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although he owns the whole estate. 2 The heir is subject to guardians and trustees until the time set by his father. 3 So also, when we were underage, we were in slavery under the elemental spiritual forces of the world. 4 But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5 to redeem thos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to sonship**. 6 **Because you are his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 7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God’s child; and since you are his child, God has made you also an heir.

Romans 4:18–25 (NIV) – Faith in what Jesus has done to make us children of God

18 **Against all hope (Even when there was no reason for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just as it had been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19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20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21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22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23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24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25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By our faith in what Jesus has done, Holy Spirit that makes us children of God. Then (1) we shouldn’t believe that we deserve, but (2) seek to grow and listen to His voice. (3) However, we should be confident knowing that He is a good Father to us and that He’ll give us the best.



로마서 8:14-17 (개역한글)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15-21 (개역한글)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갈라디아서 4:1-17 (개역한글)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4:18-25 (개역한글)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일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2) 대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길
바라야 됩니다. (3)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고, 제일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To One Another

Ministry of Unity, Justice, and Peace
서로에게, el uno al otro
English, Korean, and Spanish Speaking Young Adults Ministries
<http://www.to1another.com>